

# 미세먼지 오염수준 30% 감축 추진

정부가 임기 내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30% 감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26 $\mu\text{g}/\text{m}^3$ 에서 선진국 수준인 18 $\mu\text{g}/\text{m}^3$ 까지를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세웠다.

또 환경부 중심으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통합해 난개발을 막고 4대강 재자연화 등을 통한 수질 개선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니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청와대에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분야 추진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산업장 배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불철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중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신규 건설을 불허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전면 폐쇄할 계획이다. 또 내년 사업장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수도권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조기폐차 사업도 병행하면서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늘려간다.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위성 발사(2020년),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한·중 공동연구를 2020년까지 진행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와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250억원 규모의 특별 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하고, 화학물질 유해정보 7000여 종을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층간소음·빛공해 등 생활주변의 위해와 불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4·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을 조성하는 것도 목표다.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을 통해 평가제도 혁신하고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한다. 보전총량제, 훼손가치만큼 복원·대체하도록 의무화한다.

4대강 녹조 현상을 줄이기 위한 재자연화도 추진한다.

현재 상시 개방 중인 6개 보 외에 나머지 10개보는 정밀조사평가

## 노후 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쇄

##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등 수질 개선

를 거쳐 내년까지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와 유역관리위원회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를 2019년까지 구축하는 한편 오는 20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지방 상수도

통합,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

표·비전 및 이행전략을 확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자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도 함께 추진한다.

뉴스스



**폭염 탈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향교계곡에서 학생들이 무더위를 잊은 채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전남도, 서기관 인사 앞두고 토목직 공무원에 승진포기 요구

전남도가 서기관급 인사를 앞두고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게 승진 포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조만간 서기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건설국장이 올 1월 16일자로 토목직 직원 승진을 한 A소장과 B과장에게 서기관 승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이번 인사에서 A소장과 B과장 중 한 명이 승진 대상이지만, 포기를 요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두 명이 포기한다면 직렬 근경 3번인 C사무관이 직렬 승진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상황이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토목직 한 공무원은 "인사 고위층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승진 포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후배 공직자들이 깜짝 놀랐다"면서 "도지사가 인사했을 때

는 연공과 서열을 존중하면서 예측 가능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권한대행 체제의 첫 인사부터 직렬 순서를 파괴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선 전남도 건설국장은 "이번 승진자가 여수로 가야

하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인사보다 젊은 사람이 가야 '토목직 지리' 하나를 지킬 수 있다는 고심 때문에 승진 대상자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내년 대입 수시모집 74%...역대 최대

201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이 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요강 주요 사항을 19일 발표했다.

2018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 인원은 36만20명으로 2017학년도(34만9776명)보다 244명 감소했다.

반면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도 24만6891명에서 25만1892명으로 1만 2029명 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인원 비율은 2017학년도(70.5%)에서 74%로 3.5%포인트 높아졌다. 수시 모집 인원의 86.4%(22만 3712명)는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으로 선발된다.

## 기독교인 아버지, 무슬림 남성 사귀는 딸 살해

이스라엘 중부 갈릴에서 기독교를 믿는 58살의 남성이 무슬림 남성과 사귀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하겠다는 딸을 살해해 기소됐다고 미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미 카라리는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딸 헨리에타 카리(17)를 칼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스라엘인 헨리에타는 부모의 반대에도 무슬림 남성과 사귀어 왔고 이로 인해 부모와 불화를 빚어왔다. 지난 5월 말에는 부모의 협박과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며 집을 나와 남자친구의 집에서 그의 모친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사미 카리는 수시로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도 하고 딸을 때리는 등 협박도 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남자친구의 모친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딸의 행동으로 이미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 바 없다"며 막무가내였다.

헨리에타는 부모와 함께 사회복지사와 상담한 후 결국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고 6월12일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고교 졸업 하루 두인 지난달 13일 헨리에타는 가족 한 명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이는 아버지 사미 카리의 귀에도 들어갔다. 흥분한 그는 칼을 들고 딸을 3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서로 종교가 다른 남녀 간 교제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스위스 빙하서 75년 전 실종부부 시신 발견

스위스 남서부의 빙하에서 75년 전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경찰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위스 발레주 경찰은 시신이 지난 14일 고도 2615m의 찬콜로이론 빙하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함께 발견된 장비들로 보아 이들은 이미 수십년 전 숨진 것으로 보이며 DNA 검사를 통한 공식 신원 확인까지는 며칠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신문 '르 마탱'은 이날 희생자들의 딸로 추정되는 마셀린 우드리 뒤블랭(79)의 말을 인용해 "아버지 어머니가 1942년 8월15일 가족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산에 가셨는데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현지 구조대가 2주 이상 빙하지대를 수색하며 이들을 찾았지만 발견되지 않아 수색을 포기했다.

## 요트 수업 받던 美 소년 구명보트서 추락 사망

뉴욕시 교외의 바다위에서 18일 요트 수업을 받고 있던 10세 소년이 훈련을 위해 일부러 전복시킨 보트에서 구출되어 구명보트 위에 서있다가 바다로 떨어지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류에 맞아 숨졌다.

경찰은 이날 샌터포트 요트 클럽에서 이 소년과 다른 두 명이 타고 있던 보트가 훈련과정에 따라 고의로 전복되었으며 교사가 아이를 옆에 있던 모터보트 위로 끌어 올린 순간 배위에서 떨어져 프로펠러에 맞았다고 말했다.

교사는 아이를 다시 모터보트 위로 올려놓고 구조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소년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아이의 이름과 신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요트 클럽의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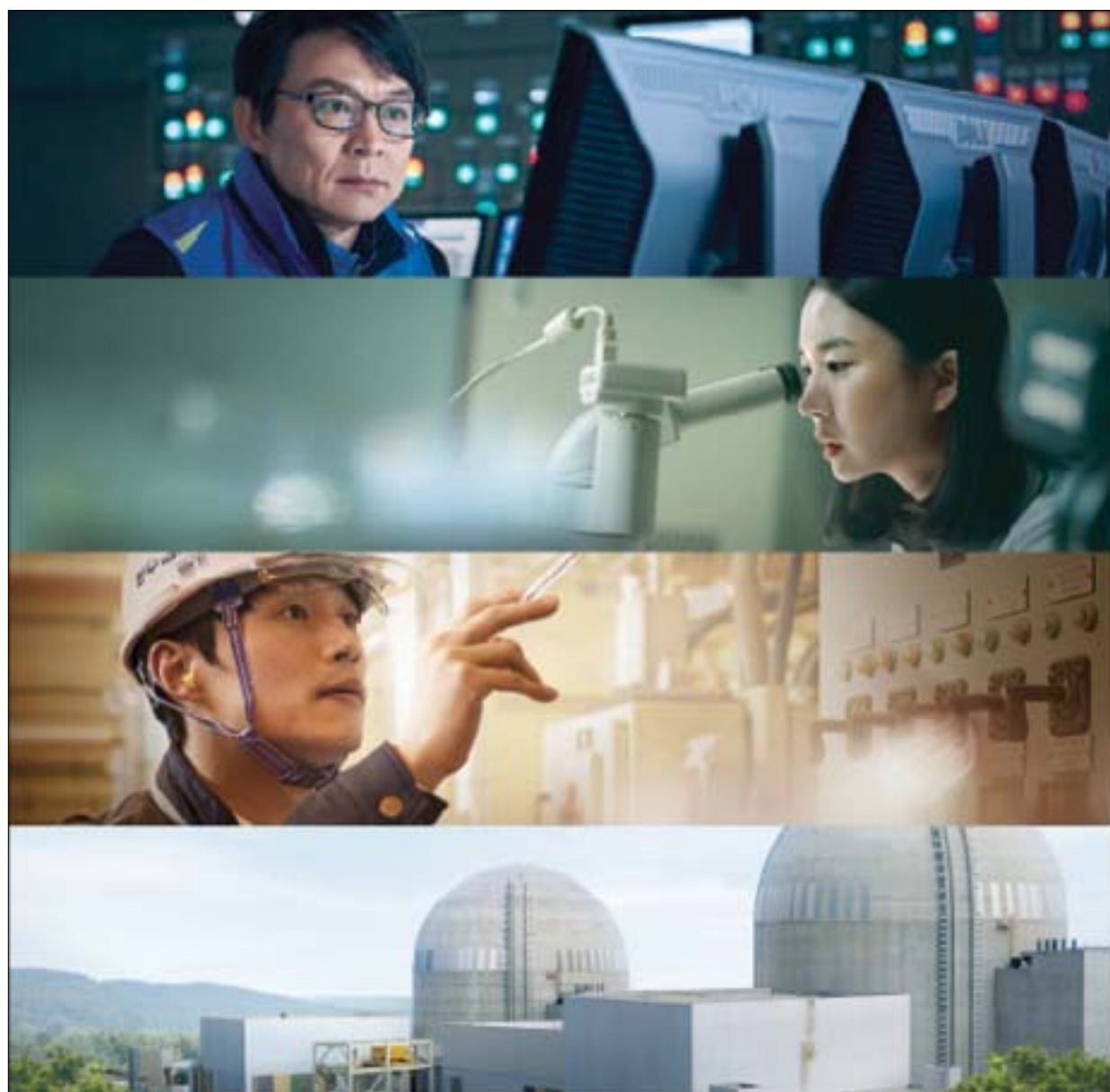
## 독일 카톨릭 성가대 학교서 수십년간 학대

독일의 한 유명한 카톨릭 소년성가대에서 1945년부터 1992년까지 역대 대원 및 학생 547명이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18일 dpa 통신이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독일 카톨릭 사제들에 의한 학대 비리가 2010년부터 연속으로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유명한 레겐스부르크 시의 톱스파첸 성가대와 그 기숙학교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다.

통신에 따르면 2015년 카톨릭 관구로부터 학대 의혹 조사를 위임 받은 변호사 울리히 웨베르는 보고서를 통해 수십 년 동안 레겐스부르크 톱스파첸 성가대 학교에 속한 547명의 소년들이 신체적이나 성적 혹은 양쪽 모두에 걸쳐 학대 당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500건의 신체 폭력과 67건의 성적 폭력 행위가 49명의 손에 의해 저질러졌다.



우리 땅,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이기에

# 우리의 기준은 단 하나, 안전입니다

기준 초과 지진 발생 시 원자로 자동정지시스템 구축  
100여개 항목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른 안전점검 준수  
경주지진의 6배 에너지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

